



여성낙농인들의 변화의 노력이 빛났던 교육

나 현 채 _ 오광축산컨설팅 R/D 본부장 (피드엔텍㈜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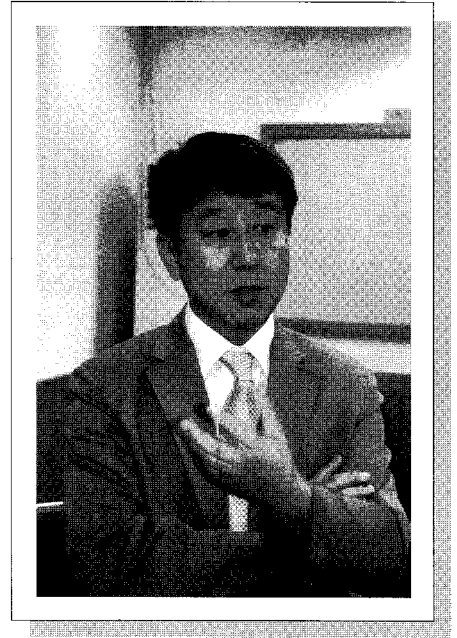
“김00씨~”, “네~”, “박00씨~”, “네~”.. 어느 여고 교실에서나 들려올 법한 출석 부르는 소리와 낭랑한 대답들이 들려오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낙농육우협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2009년 여성낙농인목장경영 전문화교육’ 현장이다. 정말 모처럼 바쁜 일손을 미뤄두고, 많은 어려움을 간직하고 고민하면서 참석한 낙농목장의 안주인들이 농장에서와는 달리 예쁘게 화장도 하고, 숙제와 필기도구들을 옆에 끼고서 마음 한 켠에는 설레임과 두려움(숙제 검사 및 교육 내용 발표)을 간직한 채 모여 앉았다.

이처럼 많은 고민을 하였던 흔적이 역력한 목장경영전문화 교육의 취지는 현재 한국낙농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낙농인들이 생산관리 및 사양관리 기술부문에 뿐만이 아니라 경영부문에 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농장의 경쟁력확보 및 생산비 절감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보조역할이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노력에서 자긍심과 성취욕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번 전문화교육인 것이다.

WTO/DDA/FTA 등등... 평상시에는 무척이나 낯설고 잘 몰랐던 단어들이 이제는 전 세계를 경쟁원리로 지배해 버릴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남성들보다 더 치밀하고 논리적일 수 있는 여성 낙농인들이 경영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내 농장에 곧바로 접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이 나라의 낙농은 참 많이 앞서고 발전할 수 있겠다는 무척 희망적인 청사진을 교육을 통해 볼 수 있었다.

1차 교육은 5월 25일~5월 28일까지, 2차 교육은 8월 31일~9월 3일까지 각각 40명씩 3박4일동안 합숙훈련을 하는 형태로, 웬만한 남자들도 견디기 힘든 기간과 내용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었다.

낙농육우협회의 강의요청을 받고서는 책장의 회계관련 책들을 다시금 찾아서 뒤적거리며 4일간 강의할 내용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피교육생





이 아닌 강사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목장 현장처럼 동일한 단어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가기 시작하였다.

협회에서 주어진 강의 내용은, '목장 체크리스트를 통한 농장의 현위치 파악', '목장 경영장부 작성-거래장부 관리 및 기

록', '목장 경영회계', '세무신고', '손익계산서 및 재무재표' 등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론강의 및 반드시 실습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다.

학교에서도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할 내용을 3~4일정도에 숙지해서 농장에 적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어떻게 눈높이를 맞추고 내용을 전달할지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평상시에 농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단어를 말하고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강사뿐만이 아니고 피교육생 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경영과 달리, '낙농경영관리'라 함은 '젖소를 사육한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벗어나,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 즉 토지/자본/노동력을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최대의 소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행위'라고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처럼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자료를 토대로 '경제성분석'을 실시하면 오늘보다 더 발전된 내일의 목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현장의 용어들을 사용하여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이 아닌 대화형식 또는 경영 전문화교육 보다는 '경영입문 토론회' 정도로 준비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내용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경영분석(Business Analysis)'을 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낙농목장 현장용어로 정의해 보면, '농장 내외의 여러 자료(유대전표, 사료매입, 수의진료, 번식자료 등) 및 정보를 검토하여 농장의 재정상태(유대수익, 사육두수, 사료재고 등) 및 경영성적(우유생산량, 우유납유량, 유대



단가, 도태율 등)의 좋고 나쁨(우유 kg당 생산비, 우유kg당 수익, 착유우 두당 수익 등)을 판단하는 수법' 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분석(Economical efficiency analysis)' 이라 함은 이러한 경영 분석에서 나타난 경제적인 문제들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인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우유 kg당 생산 사료비가 정말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인지, 현재의 1일 착유사료비(착유우 두당 사료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비용)인지, 우리농장의 착유우 평균 산차는 효율적인지 등등...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에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을 마친 후에는 실제 농장에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여, 과연 우리농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가고 있는지(경제성 분석)살펴보고, 다시금 목표를 설정하여 지난번 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PLAN(계획)→DO(실행)→SEE(평가)'를 반복해 갈 수 있도록 이번 80명의 목장 안주인들께서 선구자가 되어준다면, 분명 이번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고 자료를 준비해가기 시작하였다.

5월에 실시한 1차(1기)교육은 주로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의 여성목장 경영인들이고 9월에 실시한 2차(2기)교육은 주로 호남, 경상, 충남 지역의 여성목장경영인들께서 참석하였다. 관련기관들에서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내용 중 축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를 보면, 우유 1ℓ 경영비는 488원(2008년 기준), 우유 1ℓ 생산비는 585원(2008년 기준)이라 발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젖소 마리당 수익성' 자료를 살펴보면, 조수입→6,720천원, 소득→2,350천원, 순수익→1,520천원으로 발표된 자료를 볼 수 있다.

이럴 때 과연 이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누구 한 명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경영비는 어떤 것이고, 생산비는 무엇이고 조수입과 소득과 순수익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제 1차, 2차 교육을 받고 고생한 80명의 여성 CEO분들께서는 정



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내 농장의 수치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는 참으로 막막한 상태로 시작하였다. '부기(簿記)'라는 전문용어를 듣기만 해도 머리 속이 하얗게 되는 어느 부류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을 갈망하는 부류도 있을 것인데...

하지만, 이런 걱정은 괜히 했다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되었다. 교육 모든 일정 내내 모두들 너무나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들 속에서 목장경영의 초보자나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어느 교육현장에서도 볼 수 없는 진지한 호응과 한 글자,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기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교육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에는 다른 지역에서 참석한 분들과 친해지면서 서로의 농장을 자랑도 하고 비교도 하면서 발전된 대한민국 낙농의 미래를 미리 그려볼 수 있는 시간들도 만들어 갔다.

어느 농장에서는 그동안 배워두었던 치즈도 만들어서 저녁 단합의 시간에 적절히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고, 교육의 열기를 식혀주면서 좀더 냉철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시원한 우유를 듬뿍 찬조하는 분들도 있었다. 또 우리 지역에서는 참석자가 혼자여서 다른 지역이 부럽다는 분과 신랑이 교육장까지 데려다 주어서 좋았다고 자랑도 하면서 모두 절친한 언니 동생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8시 정도에 시작하는 아침식사나 9시에 시작한 교육이 오히려 기다리기 지루할 정도로 아침 시간들이 여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직업병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아침의 여유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최측에서는 교육장 주변에서 새벽산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서 전날 밤 단합시간에 마셨던 약간의 알코올 기운도 사라질 수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몸을 풀었던 후유증으로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뭉쳤던 근육도 시원스럽게 만들어 주는 시간은 교육 외 백미로 느껴지기도 하였던 것 같다.

이제는 낙농목장 현장에서 2세에게 조금씩 물려주겠다는 왕 언니부터 이제 막 낙농목장에 뛰어들게 된 신참까지 모두의 목적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목장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였다. 과연 모인 모든 분들의 기대를 어느정도 채워드렸는지 이제는 궁금하기도 하다.

조수익(조수입)은 생산물 판매액과 생산물 자가소비분 평가액 및 재고 평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비용)를 빼지 않은 수익(수입)을 말



하는것 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 '소득'은 이러한 조수익(조수입) 중에서 그것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 즉, 총 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의미하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소득과 순수익의 차이는 무엇일까?

1기, 2기 교육생들은 그 차이를 알 것이고, 경영비(일반비)와 생산비(사육비)의 차이도 알게 되었고, '소득'은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순수익'은 조수익에서 생산비를 뺀 수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이제는 통계자료에서 보여주는 수치나 단어들의 의미를 하나씩 이해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런 전국적인 평균치와 내 농장의 그것을 비교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농장의 우유 1kg당 생산 사료비는 얼마이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 결과인지, 우유 1kg당 사료비 공제수익은? 육성우 생산비는 얼마이고 합리적인 결과인지, 농장의 수익성은 얼마이고 합리적인지 'PLAN→DO→SEE'를 언제나 반복해야 할 것이다.

교육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모든 교육생들을 스트레스 받게 했던 시험지 나눠주는 시간과 정답을 앞 칠판에 나와서 답하고 설명하게 하는 것들이 어느 분에게는 머리카락을 빠지게도 하고, 어느 분에게는 소화불량이 생기게도 하였겠지만 지금 되돌아 보면 그런 시간들 때문에 하나라도 더 집중해서 이해하도록 하였고 훨씬 현장 속에서 이해의 폭을 넓혔으리라 믿고 싶다.

많은 축산관련 부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축산도 농가단위에서 경영체 중심으로 규모화 되어가고, 법인체들도 하나 둘씩 생기는 상황에서 좀더 효율적인 농장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경영기록과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료 하나를 구입하여도 단순한 가격보다는 RFV(Relative Feed Value)를 따져볼 수 있는 여유와 전문가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이고, 고정자산하나를 장만할 때에도 감가상각기간 및 감가상각액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지, 구입하게 되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할지, 부채(負債)가 꼭 필요해서 부채를 늘리게 되어도 언제 어떻게 상환하고 그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5가지 측면에서 분개(分介)할 수 있게 되고, 이 각각의 계정과목들이 증가나 감소되는 원칙 아래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 분명 지금의 농장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탄탄한 농장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 믿는다.

이번 교육을 담당하면서 우리 낙농현장에는 규모나 지역 구분 없이 또는 경력의 차이도 없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정말로 높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낙농육우협회가 이런 현장의 가려운 곳을 잘 어루만져서 계속적으로 또는 좀 더 심도 깊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다. 농장에서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나 정보를 농장에 전달하여도 농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전달되는 그때에만 반짝하는 식의 반응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모두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반드시 배우고 알게 된 사실을 내 농장에 올바르게 적용

또는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고, 1회용 행사가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속성이 반드시 실천 되어야 할 것이다. 농장에서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기록'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메모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생기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변화(Change)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Chance)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두 단어에서 영어 알파벳 단 한 글자 차이만 있는 것에서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고, 어린 시절 한번쯤 경험하게 된 '뺑이'는 멈추면 쓰러지게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좋은 쪽으로 변화하면서 성공적인 목장을 만들어 봅시다.

대한민국 여성낙농인들 파이팅 !!!!... ㊦